

전체총회 선언문 카드에 담긴 설명

세 개의 총회 선언문이 함께 수록된 이 기도문은 Mary Kay Neff 수녀님께서 디자인 하고 그 안에 담긴 제작 의미를 아래와 같이 풀어주셨습니다.

두 관구와 총원이라는 행정 구조가 수립된 이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2008년 비전선언문, 2014년 방향선언문, 2019년 총회 선언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된 선들은 자연스레 흐르고 함께 엉키면서 선과 색채가 사랑의 비전, 성령께 인도받은 보편적 주제를 드러내며 각 총회 주제와 선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면, 미국과 한국관구 그리고 총원의 로고는 관계의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펼치면 먼저 2008년의 비전선언문이 눈에 들어오는데 총회 대의원들이 하나의 수도회로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원의의 못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2014년 전체총회 대의원들이 미래에 나아가야 할 자리라고 여기는 곳을 설명하는 방향선언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명을 수행해야 할 바를 담은 2019년 총회 선언문이 실려 있습니다.

Z식 혹은 아코디언 식으로 기도문을 펼치도록 제작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따라가고 수채화 물감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활동과 선언문들의 교차를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기존의 전통을 탈피해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문을 제작했기 때문에 수도회의 성장과도 같은 신선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